

설 성수품 값 내려가나...정부 '역대 최대' 공급

배추·사과·소고기·명태 등 21만t...최대 60% 할인 유도 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등 농축수산물 할인 300억 투입

정부가 배추와 무, 돼지고기, 고등어 등 16대 설 성수품의 가격을 최대한 작년보다 낮게 유도한다.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에도 300억원을 투입, 최대 60%까지 할인을 시도한다.

정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1월 이른 설에 맞춰 명절 성수품 수요가 늘어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16대 설 성수품 가격을 지난해 설보다 낮은 수준이

되도록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배추와 무, 사과, 소고기·돼지고기, 명태, 고등어 등 16대 설 성수품은 1월20일까지 역대 최대 규모인 총 20만8000t을 공급한다.

성수품 공급량은 농산물이 평시 대비 2.2배, 축산물 1.3배, 임산물 2.3배, 수산물은 1.4배다.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에 맞춰 계란 수급도 관리한다.

스페인산 신선란(121만개)을 시범 수입해 대형 마트·식재료 업체 등에 공급하는 한편, 필요하면 국

영무역 공급물량을 늘리고 병아리 수입을 시도할 예정이다.

농축수산물 할인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300억원을 투입한다.

1월25일까지 3주간 할인 지원을 대폭 확대해 농축수산물 체감 물가를 끌어내리려는 것이다.

정부는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한도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할인행사 별 1인당 1만원 할인 한도를 2만원으로 늘리는 등 방식이다.

성수품 위주로 유통업체의 자체 할인(10~40%)도 병행하기로 했다.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구매할 경우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현장에서 환급(1인당 2만원 한도)하는 행사도 실시한다.

16대 성수품 할인율은 상품에 따라 최대 60%까

지 올라간다.

농·축협과 수협, 지자체, 우체국·공영홈쇼핑 등 생산자 단체나 지자체 등 규모로 이뤄지는 할인 행사도 있다. 품목에 따라 10~40% 할인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의 중증·사망을 막고 자 동절기 추가 접종을 집중적으로 독려하기로 했다.

권고 대상은 60세 이상 고령층과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노숙인·장애인 시설, 결핵·한센 시설 등) 내 거주·종사자다.

안전 대응 차원에서 도로·철도·항공·선박 등 주요 교통 인프라도 사전 점검한다.

전통시장과 다중이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백화점, 숙박시설 등을 대상으로는 전기·가스를 점검하

고 24시간 긴급 대응센터를 운영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은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 등 계절적 상방 요인이 있는 가운데 전기요금 인상,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도 증가하면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정부는 물가와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정책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지난해 12월 8~15일 만 19세 이상 3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설 귀성 의향은 43.8%로 지난해 설(34.9%)에 비해 상승했다. 이에 따라 올해 설 성수품과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박기용 기자 pboxer@연합뉴스



고병일(왼쪽) 신임 광주은행장이 광주 하남산단에 있는 제조업체 ㈜한영피엔에스(회장 김운섭)를 찾아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고병일 광주은행장, 증기 방문으로 취임 첫 행보

광주은행은 고병일 신임 은행장이 취임 첫 행보로 지역 중소기업을 찾아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고 행장은 이날 광주시 광산구 장덕동 하남산단에 있는 금속 스프링 제조업체 ㈜한영피엔에스를 찾아 코로나19와 국내외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 사항 등을 들

었다.

고 행장은 "지역 기업과의 상생발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끌어내는 일은 지역 대표 은행의 소명"이라며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필요한 실질적인 금융지원이 적기에 이뤄지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2일 취임한 고 행장은 지역경제와 상생 발

전하는 마지막 강하고 역동적인 '강소은행'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주요 경영방침으로는 '고객 이해를 바탕으로 한 금융지원' '지역경제 생태계 광주은행 영향력 확대' '능동성·창의성 바탕 스마트한 조직 운영' '사업·기능별 성장동력 발굴' 등을 내걸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연초 경기, 지난 연말보다 악화될 것"

산업부, 중견기업 620곳 조사

국내 중견기업들이 올 연초 경기가 지난해 말보다 더 악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중견기업 620개사를 대상으로 경기 전망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경기 전반 전망지수는 직전 분기(94.9)보다 1.5포인트 하락한 93.4로 나타났다.

지수가 기준점인 100을 넘으면 전분기보다 긍정적으로 전망한 기업이 많다는 것을 뜻하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제조업 경기 전망 지수는 작년 4분기보다 2.5포인트 하락한 90.5로,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업종의 전망이 부정적이었다.

자동차(100.7)는 친환경차와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판매 호조로 0.7포인트 올라 기준선을 웃돌았지만, 전자부품(99.2), 화학(79.6) 등은 모두 100 아래였다.

비제조업 경기 전망 지수는 96.5로 전분기와

같았다.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부동산(88.6)이 3.9포인트 하락했다.

수출 전망 지수는 96.7로 직전 분기(96.2)와 비슷했다.

중국 제조 공장 폐쇄의 영향으로 화학(85.5) 업종 수출 전망이 12.1포인트 대폭 하락했다.

내수 전망 지수는 전 분기보다 1.7포인트 하락한 94.9였다.

자동차(105.4)는 반도체 수급난 해소의 영향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나타냈지만, 나머지 모든 업종은 100 아래였다.

중견기업의 영업이익(93.0)과 자금시장(93.6) 전망 지수는 각각 1.1포인트와 1.5포인트 하락했다.

생산 전망지수는 97.3으로 6분기만에 100 아래로 떨어졌다.

중견기업의 주요 경영 애로 요인으로 제조업은 원자재가 가격 상승(53.2%)이, 비제조업은 내수 부진(43.8%)이 가장 많이 꼽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정부 상반기 직접일자리 94만명 채용

노인 등 취약계층... 지난해보다 1만4000명 늘어 104만4000개

정부가 올해 상반기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94만명을 채용한다. 경기 침체와 고용 질벽 가능성에 대비해 연간 직접일자리 104만4000개 가운데 90%를 상반기에 만들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을 의결했다.

직접일자리 사업은 예산을 들여 노인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한시적·경과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작년보다 규모가 1만4000명 늘었다.

정부는 "대외여건 개선 등으로 성장 경로 회복이 기대되는 하반기와 달리, 상반기에는 민생·수출 등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반기 급격한 경기 하락 가능성에 대응해 민간 부문의 활력을 지원하기 위해 신속한 재정 투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연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지난해의 약 8분의 1 수준인 10만명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작년 고용 호조에 따른 기저효과, 경기 둔화,

인구 충격 등이 겹치며 고용 상황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물가도 동반급등 수준을 이어갈 전망이다. 재정 신속 집행을 통해 민생 경제 어려움에 대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예산 30조3000억원 가운데 관리 실익이 없는 일부를 제외한 14조9000억원의 70%(10조4000억원)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할 방침이다.

물가 안정을 위한 예산 5조4000억원은 품목별 수급 상황, 명절·김장철 등 수요 집중 시기와 시장 가격 동향을 고려해 적절한 시기에 집행한다.

이런 방식으로 전체 중앙재정·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 가운데 482조5000억원의 신속 집행을 특별히 관리한다. 중앙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은 상반기에 각각 65%를, 지방재정은 60.5%를 집행하는 게 목표다.

신속 집행 관리대상이 아닌 사업도 적극적으로 집행을 관리해 올해 총지출 638조7000억원 중 6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연합뉴스

"2025년까지 모든 차종 소프트웨어 중심 대전환"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 신년사 자율주행 신사업도 본격화



현대자동차그룹이 올해 전동화와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자율주행 등 신사업 현실화를 추진한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3일 경기 화성시 현대차·기아 남양연구소에서 그룹 신년회를 열었다.

이날 정의선(사진) 회장은 지난해 전기차(EV) 전용 플랫폼 E-GMP를 기반으로 한 아이오닉5와 EV6가 '세계 올해의 차'와 '유럽 올해의 차'를 수상하고, 현대차그룹이 글로벌 전기차 판매 5위권에 진입한 것을 예로 들면서 "성공적 전동화 체제로 전환을 시작했다"고 자평했다.

정 회장은 "더 진화된 차량을 개발하고 공급해 글로벌 전기차 리더십을 공고히 하고 전동화 체제 전환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전동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EV9, 코나 EV, 레이 EV 등 경영에서부터 플래그십까지 다양한 차급의 전기차를 출시해 고객들의 전기차 경험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톱티어 위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정 회장은 "연구개발을 비롯한 회사 전반의 시스템을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보다 완벽한 SDV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해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다"고 소프트웨어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현대차그룹은 2025년까지 모든 차종을 SDV로 대전환해, 고객이 소프트웨어로 연결된 안전하고 편안한 이동의 자유와 혁신적인 사용자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2025년까지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차종에 무선(OTA, Over-the-Air) 소프트웨어 업

데이트를 기본 적용하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구독 등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차 생애주기 전반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데이터를 서로 연결하고 가공해 지속적인 혁신 서비스를 공급한다.

이밖에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국내에서 고속도로 자율주행(레벨3)이 가능한 차량을 출시, 북미에서는 레벨4 기술이 탑재된 로보택시 상용화를 실시할 계획도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상반기 레벨3 수준의 고속도로 자율주행 기능인 'HDP (Highway Driving Pilot)'를 탑재한 G90, EV9을 국내에 선보인다. 이와 함께 모셔널(Motional)을 통해 미국에서 우버(Uber) 등 차량공유기업과 손잡고 운전자가 개

입하지 않는 레벨4 아이오닉 5 로보택시 서비스를 상용화할 계획이다.

미래 모빌리티 분야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PBV 니로 플러스 출시에 이어 올해 차종을 확대, 2025년에는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을 적용한 전용 PBV 모델을 출시한다는 구상이다. 또 플스로이스, 사프란 등 주요 항공업체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AAM 기체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의선 회장은 로보틱스 분야에 대해서도 "로보틱스 랩과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리고 BD-AI 연구소간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인류의 복지와 편의를 지원하는 인간 친화적인 제품 공급의 밸류체인을 꾸준히 완성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초기 창업 벤처기업 70% '수도권 편중'

초기 창업 벤처기업의 70%가 수도권 편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4일 벤처기업협회에 따르면 '초기창업 벤처기업의 특성 및 혁신제도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초기창업 벤처기업의 수도권 소재 비율은 70.7%로 나타났다.

업력 3년 이상의 벤처기업(62.6%)이나 전국 사업체(47.5%)와 비교해 수도권 편중이 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비율이 43.0%로 가장 높고 정보통신업(31.2%),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4.2%), 도매 및 소매업(6.7%), 건설업(1.1%) 등 순이었다.

제조업은 비율이 가장 높지만 업력 3년 이상 벤처기업(65.3%)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았고 정보통신업은 3년 이상 벤처기업(20.0%)보다 높았다.

초기창업 벤처기업 대표자의 평균연령은 43.8세로 3년 이상 벤처기업(51.2세)보다 7.4세 젊었고 여성 대표자 비율은 15.2%로 3년 이상 벤처기업(9.9%)보다 5.3%포인트 높았다.

초기창업 벤처기업의 65.4%는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고 특허권 보유율은 48.3%였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255.98(+37.30)
▲ 코스닥	683.67(+8.72)
▼ 금리(국고채 3년)	3.632(-0.029)
▲ 환율(USD)	1271.70(+0.70)